

치 사

민족의 역사에서 불교유산은 사상과 문화, 그리고 민중의 삶이 오롯이 담긴 정신문화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불교유산은 1700년 동안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문화의 진정성을 꽃피우는 국가적 문화재이자, 인류를 존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진 소중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귀중한 정보의 도난은 오랫동안 민생의 삶과 함께했던 역사의 전통과 정신의 가치까지 무참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심지어 법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단은 이러한 몰지각한 폐단을 없애 정보의 보호와 계승을 위하여, 스스로의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하는 등, 선조의 정신문화를 되찾기 위해 힘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경찰청과 문화재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정보를 환수하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소중한 정보를 원래의 곳으로 모시는 인연공덕을 치하고, 사부대중 모두 축하의 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대의 정신과 민생의 발원들이 생생한 유산이기에, 오늘의 이운식은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민중의 삶으로 돌려놓는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후대의 당연한 도리를 이행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정진이 조화로운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다시찾은 정보, 이운 고불식’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아직 돌아오

지 못하고 있는 귀중한 정보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떠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환기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찰청과 문화재청,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기관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종단 소임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력과 신심으로 모신 소중한 정보가 다시금 원래의 곳에서 우리의 삶과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4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